

100도 더위

무더위와 싸웠던 한 주였다. 어찌나 더운지 한 이틀 동안은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없었다. 깊은 잠을 잘 수 없어 몇 번을 깨어났는지 모른다. 이유는 습도였다. 여름에 비교적 건조하던 오레곤도 이제는 습도를 피하지 못하고 여름이 되면 제법 땀이 흐른다.

그런데 동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이다. 습도가 높아지면 땀이 쉽게 흐른다. 끈적끈적하다. 움직이기에 너무나 불편하다. 그래서 에어컨을 찾는다. 그런데 하루 종일 에어컨 앞에 있다가 보면 오히려 몸 컨디션이 좋지 않다. 몸에 좋지 않은 증상이 나타난다. 찬 공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름을 넘기기를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어디에 살고 있던지 아름다움이 있다. 습도가 낮은 곳에는 온도가 높지만 사막의 아름다움과 높은 나무들의 아름다움이 있고, 습도가 높은 지역은 꽃나무들의 아름다움이 있다. 나름대로 어디든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더위가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짜증과 불평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사를 간다고 그 불평이 없어질까? 그럴지 않은 듯하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동부에 사는 친구 중 유난히 여름 습도가 좋다고 하는 말을 하는 친구가 있다. 그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렸으나 그 친구의 마음에 여름의 높은 습도는 자신이 살아가야하는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살던 마음의 소리였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야 깨닫는다.

분명 더운 날은 참기 어렵다. 그러나 싸울 정도로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그것을 전투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할 자연의 과정임을 깨닫는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오히려 더운 날이 곱칠 때에 과일은 맛있게 익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사야 49장 10절)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신 이 세계는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없는 아름다움 그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히려 4계절을 보면서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는 감사하며 그것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그 때에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은혜의 고백이 나오며 미래의 큰 기대와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덥다. 하지만 가을이 곧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아름다운 단풍이 더웠던 지난여름의 불편함을 전부 가져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샘물의 근원을 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